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본 논문은 한국현대소설 가운데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의 근대적인 교육현장과 교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국어과교사로서 참고할만한 소설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은 예로부터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교육의 전통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 자체를 매우 신성한 것으로 숭상해왔다. 개화기소설은 근대식 학교교육이 시작되고, 이와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출현했다. 이는 교육 및 교육정신이 민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일상생활의 의식으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이 소설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이 힘에 의존해서 소설이 존재할 수 있게 됐다.¹⁾

교육소설이란, 교육현장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이 등장인물로 등장하여 교육이 그 소설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 작품, 교육의 이상과 현실이 주요 갈등을 이루거나 교육의 힘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들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소설이라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담고 있는 근대교육소설들을 시대별로 개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소설 중 교과서에 수록되었거나 가치를 인정받은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1972),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1980),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1992) 이 네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교육현장을 소재로 삼은 소설작품에는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네 작품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먼저 이광수의 「헌신자」(1910)는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학교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오산 학교의 설립자였던 남강 이승훈을 모델로 한 소설로 알려져 있는 이 작품에는 초기 근대식 학교를 세운 인물들의 헌신적인 삶과 고뇌가 담겨 있다. 「헌신자」가 학교설립에 관한 이야기라면, 「金鏡」(1915)은 젊은 교사의 이야기이다. 「김경」의 어린교사는

1) 장윤수, 『한국 근대 교육 소설 연구』, 보고서, 1998, p.9.

선각자인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자아실현의 문제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일찌감치 피로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초기 근대교육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서구 근대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학교 설립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교사라는 직업과 일방적인 자기희생과 막중한 책임감만을 강요하는 선각자로서의 교사라는 직업을 일치시키지 못한 교사의 모습은 초기 근대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염상섭은 「E선생」, 「지선생」 등의 소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하의 학교와 그 주변의 모습을 깊이 있게 그린 작가이다. 「E선생」(1922)은 근대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염상섭의 「지선생」(1930)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의 인식과 감각에 머물러 있는 당시 조선인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식민지 ‘근대’의 교육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현장과 조선인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준의 「실락원 이야기」(1932)는 식민지 지배세력에 의하여 교육현장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조선인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식민지 시대의 소설 속에서 조선인 교사들은 헌신적이지만 근대 학교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식민지 근대’의 형식으로 이식된 근대 학교 교육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 세력에 의해서 교육현장에서 쫓겨나는 조선인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는 비민주적인 독재 권력과 고속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빈부격차의 문제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교육현장과 교사 또한 이러한 혼란스런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때로는 체제유지의 방패로서 또 때로는 체제변화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세희의 「피비우스의 띠」(1976)에는 고속경제성장의 시대에 변두리로 몰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개인과 사회, 부분과 전체, 내부와 외부가 다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수학교사의 훈계 속에는 이성의 계발과 끊임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계몽주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희의 「피비우스의 띠」는 이광수의 소설 「헌신자」와 같은 ‘계몽주의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소설이라고 있다.

전상국의 「돼지새끼들의 울음소리」(1975)는 ‘최달호’라는 실력과 수학 선생

신화적인 한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의 모의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초라하게 몰락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이야기이다. 고사홍의 「잃어버린 목소리」(1973)는 유신시대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알아도 안다고 말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한 시대의 풍경을 이 소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선 여전히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광의 「분필 교향곡」(1998)은 해방 이후, 우리 시대 교육 현장의 현주소와 그 교육 내용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알맹이 없는 수업 내용과 교사의 폭력적인 교육 광경을 통해 해방 이후 몇 십 년 간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현실 수준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

이 밖에도 교육현장을 담은 소설들은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여러번 선보인 바 있으나,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이들 네 작품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한 이유는 우선 이들 네 작품이 모두 교과서에 수록되었거나 수록될만한 작품성에 있어 충분한 검증을 받았으며, 각각의 작품들이 7,8년의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시대의 학교현장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사들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 소설에 대해 참고가 될만한 연구를 하고 싶었으며 국어과 교사로서 소설을 가르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심히 고민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교육현장을 원초적 체험의 공간으로 삼고 그 당시 우리 사회 모순을 우의적으로 풍자한 교육소설이다. 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세계를 반영하며, 현실과 상응관계를 맺고 있다. 70,80,90년대초 우리사회는 비민주적인 독재 권력과 고속경제성장정책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교육현장과 교사 또는 이러한 혼란스런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때로는 체제유지의 방패로서 또 때로는 체제변화의 전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³⁾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교사의 모습은 세 가지 유형으로

2) 이동재,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교육현장과 교사상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3)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나타난다. 첫째는 학생들과 주위의 일에 무관심한 인물로서 이들은 사회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두 번째는 파시스트적인 교사의 모습으로서 해방이후 이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자들과 닮은꼴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계몽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사이다.⁴⁾ 이러한 구분은 실제 교육소설의 교사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본문에서 살펴볼 교육소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독재 권력과 고속경제 성장사회 속에서 교실에서 풍자된 현실의 모습과 그 속에 등장하는 교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소설이 아직 학술용어로 정립되지 못하였던 시절 김윤식이 『무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교육소설이 주목할 만하다. 그 문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⁵⁾

『무정』의 기념비적 구조층이 네 가지인데, 그 두 번째 구조층이 교사 학생의 관계 구조이다. 주요 인물들의 관계 구조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즉 교사 학생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정』을 『무정』이게끔 하는, 의미있는 구조의 하나에 해당된다. 형식은 소설 첫 장면에서부터 선생의 가정교사로 부임한다. 이 서두는 상징적이어서, 『무정』을 두고 ‘교육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도 이에 관련된다.

이러한 언급은 교육소설을 일률적으로 정의했다기 보다 우리소설사에서 넓은범주에서 교육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춘원의 『무정』에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주장한 의미있는 견해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드러나는 교육소설의 의미역은 『무정』의 구조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 다중 구조의 한 성격을 지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자기 논지의 극히 제한된 부분의 해명을 위한 용어로 국한시키고 있다. 교육소설이란 용어를 무정 이외의 작품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4) 이동재,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교육현장과 교사상 연구」, 『현대문학회론학회』, 2002.

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문학사상」, 1987, p.271~309.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용어의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추단할 수 없다고 본다. 『무정』의 ‘진정한 가치’⁶⁾는 교육자 의식으로 이해된다. 교육자 의식을 교육 주체로서의 의식, 곧 피교육자의 인격 형성과 정신적 발달을 투철한 민족관이나 국가관에 입각하여 교육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이라 한다면, 이 교육자의식의 발현이 무정의 구조가 되고 플롯의 구체적 전개로 형상화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자의식이 무정의 구조 전체를 결정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이며, 감추어진 인자인 것이다.

장운수는 교육소설은, 교육자의식이 소설의 세계 전체에 구조를 부여하는 ‘진정한 가치’로 작용하며, 그 의식이 소설의 중심 주제로 발현되고, 그 의식이 보편적인 삶의 한 양상으로 제시되며, 교육적 환경이 지배적이면서도, 이들 제요소들이 소설 미학 구조의 자족성을 충족시키는 소설이라고 정의내렸다.⁷⁾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네 작품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본격적인 학술 연구보다는 주로 작품집의 해설이나 문학 계간지에 발표된 단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네 작품을 묶어서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을 하나의 독립된 대상으로 삼고 연구한 논문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이들 작품들이 이문열의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독립된 대상으로서 그리 큰 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경우를 보아도 홀로 독립해서 연구대상이 되기보다는 주로 원작을 각색한 영화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연구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소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자료나 학술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작품집 내에서의 논의나 작가론의 형식을 취한 논문들 속에서 한 뼨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황석영의 작품에 대한 연구⁸⁾는 1970년대의 산업화시대와 그에 따른

6)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조경숙, 1982, P.12. 루카치가 소설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소설 속에서 문체적 주인공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용가치'나 '본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골드만은 '진정한 가치'라는 표현을 '소설 속에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도 내재적인 양태로 소설세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가치'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개개 소설마다 특수하며, 이 가치들에 의해 작품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결정된다.

7) 장운수, 『한국 근대 교육 소설 연구』, 보고서, 1998, p.19.

8) 황석영의 70년대 중■단편소설에 대한 학위논문은 현재까지 10여편에 이른다.

인간소외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소설작품들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개발지상주의의 경직된 경제논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신분인 도시노동자 및 농민들의 소외된 삶을 현장감 넘치는 문체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던 황석영은 우리의 노동문학 및 민중문학의 연구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아우를 위하여」에 대해 논의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작품들과 묶여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윤리적 가치로서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그 실천적 발현으로서의 ‘저항과 투쟁’에의 신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일군(一群)의 작품들은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황석영 문학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아우를 위하여」인 것이다.⁹⁾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학술논문의 공포와의 대결을 통한 인간회복의 문제로 「아우를 위하여」를 정리한 「박주용, 황석영 소설 연구, 한국교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1」 등이 있다.¹⁰⁾

그리고 전상국의 경우는, 그의 소설이 주로 취하는 소재가 교육문제와 분단문제로 크게 양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하여 그에 관한 작가론이나 작품론은 대체로 이 두 소재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김인환¹¹⁾은 전상국의 작품들을 추리소설과 입사(入社)소설로 양분하여 기본형(motif)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변형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 「우상의 눈물」에서 정장 입은 권력이 별거벗은 폭력을 누르고 승리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입사단계(入社段階)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체 작품론이나 작가론 속에서

이용균,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승우, 「황석영 중■단편 소설 연구- 소설집 『객지』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강상대, 「1970년대 최인호■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과 신체의 의미」,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신재선, 「황석영 소설 연구 - 소설에 나타난 실(탈)향성과 귀향성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임희록, 「아이러니의 관점에서 본 '삼포가는 길'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주용, 「황석영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조명자,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된 인물유형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전용숙, 「황석영 소설의 유토피아 지향성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곽동애,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2003.

고하영,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종필,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상실과 회복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석사학위 논문, 2004.

강승필, 「황석영 소설 연구-1970년대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영은, 「황석영 소설 연구 - 『오래된 정원』과 『손님』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5.

9)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0) 그 외에도 「이승우, 황석영 중단편 소설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0」, 「이용균,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대학원, 1998」, 「서정숙, 황석영의 작가 의식 연구, 국어과교육 제9집, 부산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89」 등의 연구가 있다.

11) 김인환, 「주제와 변형-전상국론」, 『우상의 눈물』 해설, 민음사, 1983

「우상의 눈물」을 다룬 연구로는 먼저 김영선¹²⁾의 경우, ‘한 학급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을 두고 교사의 위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비교적 평이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권채린¹³⁾은 ‘선악의 이분법적 인식이 해체되고 소외된 타자로서의 악의 존재가 부상한다는 것’과 ‘비판받아야 할 진정한 악은 폭력의 성격이 은폐된 구조적 악’이라는 보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였다. 한편, 최용주¹⁴⁾는 현대사회에 만연된 악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 억압의 폭력성을 해부함으로써 진정한 지배실체를 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⁵⁾

이문열의 경우는 그 탁월한 문학적 성과로 인해 많은 독자들에게서 찬사와 갈채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평가들한테서는 적은 관심과 인색한 평가를 받아 왔었다.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작가 자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이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소위 ‘시대와의 불화’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지금까지 그에 관한 평가들은 ‘능란한 이야기꾼,’ ‘전망 상실의 허무주의자’, ‘관념적 보수주의자’, ‘고향의식과 사대부 정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어 왔는데 그것은 그 소재의 방대함과 주제의식의 다채로움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는 듯하다.¹⁶⁾ 이문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먼저, 김미옥¹⁷⁾의 경우 작가의 가계와 생애, 작품분석을 통한 작가의 문학관을 분석하면서 그의 낭만주의적 세계인식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옥동¹⁸⁾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이남호¹⁹⁾는 이문열의 작품세계를 돈과 성(性)의 존재양식, 권력과 군중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날카롭게 해부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현실의 깊은 통찰과 리얼리티를 보여주지만 리얼리즘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며, 그래서 이문열의 소설은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12) 김영선, 「전상국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3) 권채린, 「전상국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4) 최용주, 「전상국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 그 외에도 「이숙민, 전상국 성장소설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0」, 「김병연, 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연구- 전상국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등의 연구가 있다.

16)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7) 김미옥, 「이문열소설연구-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18)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문열은 실존주의자로 범주화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나 작가들이 그동안 기본개념으로 받아들여온 주장들을 다룬다. 심지어는 그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조차도 그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이 실존주의적 세계관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통하듯이 로 적어도 주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듯이 이문열에 있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이문열에 있어 모든 길은 다 실존주의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옥동, 「이문열 -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 민음사, 1997, p. 30.)

19)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이문열 중단편집(하)』 해설, 열린책들, 1993

이문열에 대해서 가장 냉혹한 비평가는 김명인²⁰⁾이 아닌가 싶다. 그는 이문열의 작품세계를 체제 옹호적이고 보수반동의 성격을 띤 전망부재의 허무주의로 규정하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국민적 인기를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1) 22)}

마지막으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의 경우 김동훈²³⁾은 토론으로써 다양하게 고전작품을 이해하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생활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며 최시한이 소설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문학교육을 '인간학'이라 생각한 것이라 말한다. 박혜주²⁴⁾는 글읽기와 글쓰기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일이며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임을 말해주며 그의 소설을 통해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최시한 소설의 경우 그의 소설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현재진행형의 성격이 강한 그의 작품 활동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앞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먼저 연구방법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교육소설의 정의를 내려보겠다. 한 비평용어 사전에 의하면²⁵⁾ 교육소설(education novel)은 18세기말의 30여 년 동안 영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고, 1790년과 1820년 사이의 미국 소설가들에게서도 성행했다. 이에 의하면, 영미교육소설은 젊은 규수나 신사를 바람직한 시민으로, 그리고 도덕적,지적으로 자기를 믿는 개인으로 교육시킬 계획을 소설 형식으로 제시한, 18세기말에 발달된 장편소설 양식이라고 정의된다.

프리드만(Norman Friedman)은 '성장'이나 '교육'을 플롯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²⁶⁾ 그는 성격의 변화에 좌우되는 플롯을 '성장플롯(the maturing plot)',

20)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이문열』, 살림, 1993

21)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체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참조..

22) 그 외에도 「안남연, 이문열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작품에서 드러나는 관념성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통해 본 현실인식의 한계, 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김태준, 이문열 중장편 소설 연구, 안양대 교육대학원」, 1999, 「정지아, 이문열론 - 작가의 현실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7」 등이 있다.

23) 김동훈, 『교실에서 세상읽기』, 대경출판, 1997, p.14.

24) 박혜주외,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p.14.

25) 이명섭, 세계비평용어사전(서울:을유문화사, 1985), p.4.

26) Norman Friedman, Forms of the Plot, Philip Stevick ed., The Theory of the Novel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67), pp.161~164.

사과의 변화에 좌우되는 플롯을 '교육플롯(the education plot)'이라고 규정한다. 교육플롯은 주인공의 생각과 신념, 태도에 의해서 개선되는 사고(thought)의 변화를 포함한다. 주인공의 사고가 처음에는 부적절함(inadequate) 것이었다가 나중에 개선된다는 점에서 성장플롯과 비슷하지만, 사고의 바람직한 변화가 주인공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플롯의 요체는 주인공의 하여금 보다 폭넓은 사고를 갖도록 그에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다. 주인공이 어떤 위협을 받다가 마침내 새롭게 개선된 완전성(wholeness)을 갖추게 될 때 독자는 안도감과 만족,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양에서의 교육소설의 개념은 주인공의 인격 형성, 정신적 발달, 교육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요약된다.

교육자의식이나 교육 사상, 그리고 교육적 환경이 지배적인 소설은 이미 한국 소설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소설의 성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입증하고 교육소설의 실체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여기에 필자의 관점을 더하여 교육소설의 정의를 내려 보겠다.

교육소설이란, 교육현장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이 등장인물로 등장하여 교육이 그 소설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 작품, 교육의 이상과 현실이 주요 갈등을 이루거나 교육의 힘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들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소설이라 정의내리겠다.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여러 작가들의 교육현장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이들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시대 사회의 축도로서 그 핵심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네 작품은 모두 정치적 급변기에 탄생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즉,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는 유신정권이 막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1972년에,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신군부가 새로이 정권을 잡은 시기인 1980년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신군부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물결이 거리를 물들었던 1987년에, 마지막으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한창인 전교조의 논쟁이 한참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1992년에 각각 발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은 각각의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시대와 연결했을 때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즉, 제도화된 민주적 절차 없이 총칼을 앞세운 푸른 무늬의 옷을 입은 일단의 사람들이 펼치는 ‘힘의 논리’에 의한 국가지배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갖가지 형태의 억압들, 이를테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조작, 재야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을 고스란히 경험해야했던 세대로서 것처럼 부조리한 현실을 직접적인 고함이 아니라 간접적인 속삭임의 방식으로 고발하여 민중들에게 깨우침과 희망을 주려 한 것이 바로 황석영의 단편 「아우를 위하여」이다. 그리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전체 사회의 질서에 조금이라고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가차 없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시대적 경험을 모티프로 하여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인 것이다.²⁷⁾ 이문열의 경우는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자각 없이 늘 독재자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기만을 바라는 다수 민중들의 ‘의식 없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수한 채 당시 민주화의 열기가 한참 불타오르고 시내 곳곳이 민중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한들 무엇이 바뀔단 말인가, 하는 역사에 대한 짙은 허무주의 의식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집필했다.²⁸⁾ 끝으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전교조 투쟁이 한창이던 1990년초를 배경으로 전교조 문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야했던 억압적인 교육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적, 교육학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소설에 나타난 교육현장과 교사상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급변기, 고속경제성장시기에

27)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8) 작가 이문열은 스스로 80년대의 자신의 창작적 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내 행동의 모호성 같은 것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때의 정권이 정통성도 정당성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밖에 없지만, 내가 영거주춤했던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와 관련해서 소위 ‘기정화’의 논리, ‘어찌됐건 기정 사실로, 헌법을 장악한 정권으로 돼버렸다’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이미 밝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과정에는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기정화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의 약속만 지킨다면 이미 일어난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기분을 하나 갖고 있었던거죠. 또 하나는 대안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정통성 없는 체제에 대해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성에 대해 나는 믿지를 못한 거죠.”

그는 80년대의 격랑을, 소수파의 입장에서 그냥 숨거나 습관적으로 얼굴을 붉히며 뒷골목으로 피해다니며 지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범」으로 버텼다고도 할 수 있다.

“80년대를 말하자면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태도랄지 취향 같은게 있을 수 있는데, 몽땅그러 진보 혹은 보수라고 말할 때의 개념처럼 말이죠. 내가 자신있게 버틸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박윤석, 「부악문원 탐방」, <신동아>, 1998.4)

발표된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이 네 교육소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제시된 '왜냐선생'의 소설교수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제재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고,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교하여 교육소설을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정립한다는 의의와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의 소설교육이 지향할 바를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II. 교육소설의 주제와 양상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용기 -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아우를 위하여』(1972)에서는 학교,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용기와 비겁, 저항과 무관심과 굴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6·25 직후의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상이 이 소설의 배경으로, 형은 장성한 아우에게 유년 시절의 체험을 들려준다.

‘나’가 부산에서 전학 온, 서울의 학교는 미군 부대가 진주해 있어 빈 창고나 들판에서 수업해야 하는 판국이다.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도 폭력을 바탕으로 한 비정상적인 지배 세력(급장인 영래를 중심으로 한 나이 많고 힘 좋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모른 척하거나 굴복해 버린다. 그러나 교생 실습을 나온 아름다운 여선생님에 의해 아이들 마음에 용기가 자라나고, 그들의 힘은 끝내 승리를 얻는다는 이야기다.

1. 작품 배경

『아우를 위하여』에서는 수복하고도 수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¹⁾에 미군부대가 들어와 있어서²⁾ 학년별로 뿔뿔이 흩어져 교실 대신으로 쓰고 있는 빈 창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 1999년부터 공식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나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충실하자는 취지하에 그 용어를 ‘국민 학교’로 쓰기로 한다.

2) 황석영에 반미(反美)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군부대 때문에 학교가 학년별로 뿔뿔이 흩어져 빈 창고나 들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든지, 폭력으로 한 반을 제압하는 이영래의 등장 뒤에 미군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우리 민족의 불행이 상당 부분 미군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이러한 반미사상은 베트남전(戰)을 배경으로 한 그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P X로 상징되는, 제 3세계에 던지는 미국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P X란 무엇인가.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라는 표어가 적힌 방패를 들고 로마식 단검을 들고서, 성조기의 옷을 입고 낫선 고장마다 나타나는 잉클샘의 지붕 밑 방이다. (중략)

그리고 P X는 바나나와 한줌의 쌀만 있으면 오순도순 살아가는 아시아의 더러운 슬로프 헤드들에게 문명을 가르친다. (중략) 아메리카의 재화에 손댄 자는 유 에스 밀리터리의 낙인을 버리에 찍는다. 캔디와 초콜릿을 주워먹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들의 온정과 낙천주의를 신뢰한다. 시장의 왕성한 구매력과 흥청거리는 도시경기와 골목에서의 열광과 도취는 전쟁의 열도에 비례한다. P X는 나무로 만든 말이다. 또한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무기이다. (황석영, 『무기의 그늘』 상, 창작과 비평사, 1992, p. 67)

「나는 피난지 부산의 학교에서, 수복되고도 수년이 지난 서울로 전학을 해왔던 첫날, 기분이 잡쳐버리고 말았다.

우리 학교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어서 학년별로 여러곳에 뿔뿔이 흩어져 빈 창고나 들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았고 창고 대신 화판을 받쳐 글씨를 썼다. 어둡침침한 창고 교실에서 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글거렸으니 언제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게 보였다.」

「아우를 위하여」에서는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로 새롭게 전학을 온 상태이다. 새롭다는 것은 분명 설렘과 기대감을 주는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한편 그 이면에는 두렵고 부정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 환경 자체의 열악한 조건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³⁾ 「아우를 위하여」에서 새로이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서술자의 눈에 비친 그 첫인상은 둘 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열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작품 속에서 교실은 여러 사건이 진행되는 소설적 공간의 역할 외에도 그러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사회집단이나 정치현실을 우의적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에 의해서 키워지고 그들의 힘에 의해 쉽게 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을 이용하여 폭력적인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급을 운영하며 학급아이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작중인물 ‘영래’의 모습 속에서, 해방 이후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정권을 장악하고 이에 빌붙어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해온 남한정권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체행동’이라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학급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 또한 군사독재 시절의 우리사회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2. 권력의 중심인물인 ‘영래’

3) 황석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우리 세대의 유년기에 관한 기억속에는 50년대의 저 음울한 폐허로 상징되는 전후(前後)의 분위기가 고여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정서는 반사적으로 강렬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엔 이미 자기네가 어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조숙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녹슨 탄환, 철조망, 천막교실, 양공주, 나이먹은 학급친구, 콘돔, 소년 끼리의 전쟁과 같은 폭력, 그리고 양키, 우유배급, 구제품, 꿀꿀이죽 등등 언뜻 생각나는 대로 아무것이나 끄집어내보면 우리들 유년기가 마치 이탈리아 영화에 나오는 어느 뒷골목 같은 연상이 들 정도다. (황석영, 『열애』 작가서문, 나남, 1988)

「영래는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싸젠이 기른다는 아이였다. 술이 주렁주렁 달린 인디언식 가죽 저고리에 청바지를 입고 시계까지 차고 다녔다. 눈이 가늘게 찢어지고 어깨가 바라진 영래는 벌써 다리에 털이 돋은 열다섯 살바기였다. 미군 지프가 신입생과 선물을 싣고 제분 회사 청고 앞마당을 돌며 클랙슨을 뱅뱅 울리니까 애들이 모두 환호성이었다. 배불뚝이의 맘줄게 생긴 싸젠이 초콜릿과 도넛을 애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그날로 영래를 찬영하며 그애의 가방을 들어다 주는 아이가 생겼고, 얼마 안가서 둘째 셋째 가다인 은수와 종하까지 그애 편으로 붙었다.」

영래는 전쟁 직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신을 돌봐주는 미군이 초콜릿이나 도넛을 나눠주는 일을 계기로 아이들로부터 환심을 삼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고 권력을 잡는 것 역시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또한, 영래는 자신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싸젠이라는 인물의 도움 아닌 도움으로 아이들이 그를 따르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의 바른 메뚜기가 자리를 비운 자습시간에 영래가 무고건 동열이를 불러내어 “임마, 너 나한테 잘못된 거 없어?” 하고 따지면서 다짜고짜 발길로 걷어찬 다음 막 때리고 그애 머리를 깎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침을 삼키며 그 애가 머리를 움켜쥐고 죽는 소리로 우는 걸 바라보기만 했다.」

영래는 원시적이며 일차원적인 권력행사를 하며 앞뒤 상황 구분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아이이다.

3. 방관자 ‘수남’과 아이들

이 글을 이끌어가는 서술자 수남은 전학생으로 이전의 자신의 조직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권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구조 속에서 갈등한다.

「바보같은 놈들이 설쳐 대는 꼴을 보니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래만한 통솔력도 없는 터에 모두들 나더러 공부 좀 한다구 으스맨다고 할 거였다. 그 전 학교에서처럼 발언권을 얻어

동의와 재청을 받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재미있던 판국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까짓거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영래가 반장이 되고 나서 나는 학교에 가는 일이 시큰둥해진 느낌이었다. 무관심했던 내게도 불편한 사태가 자주 벌어지게 되었는데, 영래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남은 비합리적이며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을 바라보며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목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경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영래의 부조리한 권력행사에 대해 아무런 노력과 항거없이 그를 따르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조직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적극적이지 못한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는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 때에 꼭 물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흘릿 느꼈던 것이었다.」

수남은 영래 패거리가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여자교생선생님(일명 병아리 선생님)⁴⁾께 저지르는 나쁜 행위를 계기로 권력에 대항하게 된다. 만약 수남에게 교생선생님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방관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남에게는 병아리선생님이 나타났고 또 그 분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해를 끼치려는 권력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는 아주 좋았고 수남의 대항으로 인해 권력은 와해되었고 불합리한 권력을 무너뜨릴수 있게 됐다.

4. 여자 교생 선생님 (햇병아리 선생님)

교사는 한 사람이 태어나 인간이 되는데 교육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뿌리를 둔다. 「아우를 위하여」에서의 자신이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밖으로만 나도는, 교육적 사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라는 별명의 담임선생과 달리 사랑과

4) 여기서 여자교생은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정식교사는 아니지만 작품 속에서 정식교사 이상의 비중을 가지기에 ‘교사’의 범위 안에 넣어두기로 한다.

온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여자교생이 등장한다. 햇병아리 교생의 모습에 비친 영래와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세대의 잘못된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정의를 호소하며 관심과 사랑도 가르친다. 결국 아이들은 움직이게 되고 주인공은 막았던 눈과 귀를 열게 된다. 주인공은 당연히 하였던 자신의 상황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아이들은 기지촌 아이들과 친해지기도 하면서 관심과 사랑 그것의 힘을 깨우쳐간다.

이 ‘병아리 선생’은 ‘단체행동’이라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학급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나와 학급아이들의 반발로 영래와 그 일당들은 무너지게 되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꺼야. 걸인 한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포에 굴복하고 숭배하게 되면 나약한 겁쟁이가 된다. 어렸을 때 노깡(땅에 묻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멘트로 만든 통로)에 충알을 주우러 갔다가 뼈다귀를 보고 놀랐던 나는, 선생님을 만나며 용기를 되찾는다.

이렇게 병아리 선생님은 아이들 마음에 사랑과 자부심, 강자에 저항하는 용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교사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우를 위하여」 제목은 아우와 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 전체가 바로 아우고, 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모두가 형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두려움에 망설여 하는 아우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로서 힘이 센 사람은 폭력으로 다수의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폭력 앞에 비굴해지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폭력에 굴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편지를 읽는 아우(모든 독자)에게 불의하고 억압적인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바라는 소망을 피력한 교육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야성보다 더 무서운 지성의 회의 -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은 학교라는 하나의 사회구조를 통해 교사나 학생들의 삶을 설명하여 학교 또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그 모순은 숨길 것 없는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권력과 합법적인 지배를 통해 교묘하게 위장한 권력간의 힘겨루기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 상황은 주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담임선생, 형우, 기표라는 지배자와 학급 학생, 유대라는 피지배자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교활한 위선과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안을 들여다보면 최기표의 일당이 한 편에 있고 담임과 반장이 다른 한 편에 있다. 이 둘의 대립으로 소설의 갈등이 구성된다. 그러나 최기표가 아무리 위력적이라 할지라도 담임과 반장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담임은 이미 최기표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그를 길들일 방법까지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상반되는 두 축 사이의 갈등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담임교사가 기표를 길들여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 함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기표나 교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도덕적 가치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 단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 특히 교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자율성의 이면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책략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술자인 유대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교사의 그러한 행위는 기표를 격리시킴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혹은 진정으로 기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내적 진실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흥미로움만이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사물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권력, 사회 안에서의 영원한 화두

우상의 눈물은 학교라는 또 하나의 사회구조를 통해 교사나 학생들의 삶을 설명하여 학교 또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그 모순은 숨길 것 없는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권력과 합법적인 지배를 통해 교묘하게 위장한 권력간의 힘겨루기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 상황은 주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담임선생, 형우, 기표라는 지배자와 학급 학생, 유대라는 피지배자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모습의 통해 작가는 그 시절, 학교가 순수하기만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가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사회의 한 일환임을 보여준다.

권력과 지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땅에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무리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라고 개념지어진 그 안에서는 권력과 지배가 항상 존재해왔다. 권력자들은 그 사회를 위해 일하고 관리하는 대신 권력과 힘을 보장받는다.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권력자들이 생겨나고 그 권력자들간의 다툼을 이 소설에서는 그리고 있다.

이 글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의 권력을 보여준다. 기표의 권력이 폭력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 담임과 반장의 권력은 다듬어지고 포장된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권력의 대립에서 결론적으로 승자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담임과 반장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기표와의 권력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담임과 반장이 기표가 가진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우상시 하는 기표의 권력은 그의 감추어진 가정환경이 만들어내는 허상과 악에 대한 동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가 옳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그의 악한 행동이 그 또래에서 가능한 ‘멋지다’라는 감정으로 반 아이들에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한다.(그것은 허상에 대한 동경일 뿐이다.) 그런 판단들이 그를 우상화 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표의 권력은 존재할 수 있었다.

담임과 반장이 가진 권력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것은 반 아이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표의 권력처럼 ‘우상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표의 권력과 정면으로 대립해서 충돌하게 된다면 이들에게는 승산이 없다. 학교 측⁵⁾이 린치를 당한 학생들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기표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

5) 담임과 반장이 가진 권력과 동일하다.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담임과 반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기표가 가진 권력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정면충돌 보다는 그 속성을 파헤쳐, 이상화 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사실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눈물겨운 이야기’인 것처럼 미화시켜 그의 힘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표의 권력을 지지해 주고 있던 뿌리가 뽑혀나가자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선택하게 된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긴채.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과 반장의 권력은 ‘선’으로 보인다. 반면 기표가 가진 권력은 별거벗고 있는 듯 보인다. 합법적으로 포장된 권력이 ‘위선’의 탈을 쓰고 치밀하게 움직일 때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2. 지배자, 그리고 그 사이의 다툼

2-1. 담임과 형우

소설 속에서 담임과 형우는 겉보기로 기표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표의 힘을 빼 길들이려 하고 있다. 학기 초, 담임은 ‘사랑과 신뢰’라는 말로써 자율적인 학급 분위기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이탈, 낙오 등을 용납하지 않는 합법적인 지배와 통제였던 것이다. 담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이었으며 무사안일의 1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즉 자율이 필요했던 것이다. 담임은 형우를 반장으로 뽑고 위선적인 권력을 함께 행사해 나간다. 우선 기표의 힘을 빼기 위해 시험에서 기표가 커닝을 통해 아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시도해 보지만 실패하자, 형우는 기표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주위에 알린다.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표를 무서운 권력자가 아닌 가난에 힘겨워하는 불쌍한 아이로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과 형우는 결코 기표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퇴학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옆에서 기표의 힘을 빼어 길들이려 하고 있을 뿐이다.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라는 집안의 어떤형의 말처럼 기표를 없애는

것보다는 옆에 두고 자신들의 선행을 알림으로써 자신들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것 같던 그들의 계획은 기표의 가출로써 불발에 그치게 된다.

2-2. 기표

기표는 그야말로 순수한 악이다. 독재자인 ‘기표’는 철저히 주먹으로 군림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그는 한번 한 학생을 폭행할 때 정말 다시는 자신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켜나간다. 실제로 어떠한 아이들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는데 그것은 기표를 절대적인 권위를 자로 작품안에서 그리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기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퇴학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기표가 직접 걸리는 경우는 퇴학을 시키기에는 너무 미미한 경우이고 제적을 당할만한 큰일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지 않고 속 빠져있다. 그래서 그는 정학을 몇 번 당하긴 했지만 퇴학을 당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비열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부끄러움이나 자비를 모르는 악의 화신으로 반 아이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기표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거부한다. 그것은 형우가 제안한 컨닝 페이지를 신고하고 형우를 폭행한 것에서도 들어 난다. 하지만 형우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기표와 채수과라는 것을 끝내 밝히지 않으면서 채수과들은 결국 형우에게 모두 사과를 하게 되고 수족을 잃은 기표는 자연히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표가 반 아이들과 사회가 주는 동정을 수줍은 미소로 받아들이는 장면이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 이상 기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표는 단순히 동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을 끝낼 수 없었다. 사람들의 동정은 자신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바친 채수과가 자진해서 돈을 줬다는 등 왜곡된 상태에서의 동정이었고 그는 그것이 들통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그는 도망친다.

결국 기표는 이 사회의 최대의 피해자로, 자신의 악의 속성을 그저 권력자의 욕망을 위해 이용당하는 존재로써 등장한다. 그 외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건 속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온정의 가면에 속게 된다.

3. 피지배자, 권력을 바라보는 두 시선

3-1. 학급 아이들-우중(愚衆)

기표는 아이들에게 많은 나쁜 짓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표를 무서워하면서도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기표가 교사들, 곧 기성세대의 어정쩡한 태도와는 다른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을 한낱 쫓겨러운 존재로 여길 뿐 오히려 그룹과의 선생의 완벽함에 더 매료되곤 했다. ……그렇다고 그룹과의 선생처럼 철저하게 얼굴에 철판도 깔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코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인습적이고 위선적인 교사들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고, 직접적인 폭력이고 권위일지라도 가식적이지 않은 분명한 권위에 자신을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다. 기표가 매스게임을 위해 담임이 사다준 옷을 찢어버리는 행위나 인간 양심의 타락을 개탄하는 채플 시간에 교실에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아이들도 시락을 먹어버리는 행위에서 아이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성세대에 길들여지지 않는 또 하나의 권위를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상이 그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자 더 이상 기표를 우상으로 보지 않는다. 수줍어하는 기표의 모습은 기성세대에 복종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만 믿을 뿐이다. 기표를 위하는 척하는 형우와 담임의 행동을 보이는 대로만 믿고 있다. 형우와 담임의 계획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은 변해간다.

이 소설에 나오는 학급 아이들은 곧 우중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우와 담임의 계획대로 행동함으로써 사회에서의 대다수 민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기표가 떠난 후, 기표와 같이 그들의 계획적이고 위선적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형우와 담임선생이 이끌어 가는 대로 잘 따라갈 것이다.

3-2. 이유대(서술자인 나)

학급 아이들에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이유대, ‘나’이다. 유대는 우중처럼 선생이나 형우의 행동의 표면만 보지는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르더라도 그들의 심중을 알고는 있으며 그래서 그 가식적인 의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 유대도 한 때는 권력자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계획대로 움직인 순진한 우중이었다. 1학년 시절 유대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담임의 첩자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자신은 반을 위해 이바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학급을 더 편하게 다스리려는 담임의 수단으로 쓰인 것뿐이었다.

기성세대의 위선과 가식을 한번 겪어본 유대로서는 형우와 선생의 기표를 생각하는 척하는 행동 속에 숨겨진 가식과 위선이 눈에 뵈히 보였고, 그런 그에겐 기표의 사악하지만 가식적이지 않은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관찰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 그것은 무서운 위선과 가식을 겪어본 그로서는 그 합법적인 권위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한 채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날카롭고 비판적이지만 행동하지 않는 유대의 시선을 따라 이 소설은 흘러가게 된다.

4. 담임(김 선생)의 이중성(교묘한 권력자)

「우상의 눈물」에 등장하는 담임선생님(김 선생)은 결코 올바른 교사상을 띠고 있지 않다. 우선, 담임의 ‘언행불일치’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담임은 편반이 끝난 후의 교실에서 1년간의 일사불란한 향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해에 역행하는 놈은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학생들의 말썽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율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얼마 후, 담임은 이유대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한다. 그 곳에서 그는 유대의 어머니에게 기표의 험담을 하는가 하면 유대에게 일종의 첩자역할을

부탁하며 숙내를 드리낸다.

담임이 자신의 학생에 대한 험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 자율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반의 통제를 위해 학생을 이용하려던 모습은 ‘언행불일치’라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올바른 선생이라면 제자의 공평한 처지를 반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전체와 대중들에게 서슴없이 알리지도 못할 것이고 기표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부정행위를 용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기표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이 반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편의만을 중요시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담임의 행위는 기표를 하나의 보살피야 할 존재가 아닌, 하나의 악의 존재로서 자신과 반 아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기표를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켜 잠재우는 것으로써 자신의 교사생활이 1년 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기만을 바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가출한 제자의 걱정은 커녕 취소될 영화사 사람들과의 약속을 염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작품은 우리사회전체에 대한 강렬한 통찰이 담겨있는 글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담임은 사회에서의 교묘한 권력자에 속하며, 형우는 그 권력자에 붙어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글의 나레이터 역할인 유대는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지만 그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저 방치하는 인물이다. 기표는 이 사회의 최대의 피해자로, 자신의 악의 속성을 그저 권력자의 욕망을 위해 이용당하는 존재로써 등장한다. 그 외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건 속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온정의 가면에 속게 된다.

작가는 신은 자신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악마를 추방하지 않고, 영원히 그것을 이용한다고 말을 인용했다. 바로 교묘한 신은 선생을 뜻하는 것이고, 순수한 악마는 기표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권위의 모습이 작가의 눈에 그렇게 비추어 진 것이다.

민중에게 가면을 씌운채 불합리한 권위를 이용해 사회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악랄한 모습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기까지 한다면 교묘한 술책으로 가려졌을 뿐이지 왜곡된 독재이며 그런 왜곡된 권위라면 그것에 정면으로 싸워나가야한다고 작가는 외치고 있는 것이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는 민주적 주인의식 -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 교실 집단 속의 권력 관계와 집단으로의 편입 과정을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를 떠나 작은 읍의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나(한병태)’가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절대 권력으로의 순응, 그리고 다른 세력을 뒤에 업은 채 저항하는 아이들의 모습까지를 한 편의 작품으로 다뤄 절대 권력이 지닌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한병태’ 생각의 변화에 따른 행위 변화

작품 속에서 한병태는 서울학교에서 시골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5학년 전학 당시 시골 학교의 상황은 ‘엄석대’라는 인물의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학교를 생각한 한병태는 권력에 복종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반아이들의 따돌림과 담임선생님의 불신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태는 결국 권력의 힘에 복종하게 되고 엄석대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즐기게 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독재권력에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려다가 결국 순응해 버리고 만 한병태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생각의 변화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세	권력에 대한 순응의 자세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학교와 너무 다른 시골 학교 · 급격한 지위의 추락 ·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 · 서울 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 수직적 관계에 대한 거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따돌림 · 엄석대의 횡포에 대한 저항의지의 상실 - 굴복 ·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무관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석대의 잘못을 밝히려 함 · 윤병조의 라이터 사건 · 엄석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 엄석대 왕국의 규칙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석대 앞에서 주저앉아 울음 · 엄석대와 어울림 · 엄석대의 질서에 동화됨

2. 삶과 죽음의 공간으로서의 교실 분석

작품 속의 공간인 교실은 ‘5학년 교실’과 ‘6학년 교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학년 교실’은 독재정치가 가행되던 상황이고, 엄석대라는 한 인물에 의해 모든 권력이 장악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엄석대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지만 한병태나 반 아이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6학년 교실’은 이전의 상황이 반전되어 엄석대 왕국이 아닌 반 아이들 전체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6학년 교실’을 반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삶의 공간이 되지만 엄석대를 기준으로 보면 죽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본 작품 속에서 교실의 유형을 위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작품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 정치가 가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민주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민주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반 아이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아 ‘5학년 교실’을 죽음의 공간으로, ‘6학년 교실’을 삶의 공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아래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들은 모두 다르다. 지배질서의 모습도 다르고, 중심에 서있는 인물도 다르며, 교실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모습은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공간(5학년교실)	삶의 공간(6학년교실)
지배질서	독재정치의 상황	민주적 질서의 태동
중심인물	엄석대	반 아이들
모습	엄석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종 비리들	반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민주적인 모습 (시행착오, 의사결정과정의 모습)
의사표현의 유무	없음	있음
부수적 인물	반아이들, 담임선생님	반아이들, 담임선생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5학년 교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당시의 사회모습이다. 이제 ‘죽음의 공간’인 ‘5학년 교실’이 상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2-1. ‘죽음의 공간’인 5학년 교실의 상징적 의미

‘죽음의 공간’인 ‘5학년 교실’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친 독재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재 정치의 사회를 이끌어 갔던 자유당 정원을 우의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의 유형이 사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작품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위의 유형이 사회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5학년 교실’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죽음의 공간(5학년 교실)	비판하고자하는 사회
인물 유형	엄석대의 독재와 공포정치 절대 권력을 지니려하는 인물	독재에 의한 공포정치 독재정치를 가행하는 정치인들과 권력에 기생하려는 사람들
	사회의식이 결여된 주인공과 반아이들	자신의 안위와 기회주의 근성에 기생하는 시민들
	개혁적 의지를 실천하는 인물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는 6학년 담임선생님	독재정권에 반발하여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려하는 인물
행위 양상	6학년 담임선생님에 의해 반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하면서 이전에 추구되어 오던 독재자, 엄석대의 권력이 상실	민주시민들의 각성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며 오래도록 집권해오던 독재자의 몰락이 이루어짐
<p>소설은 예술품이고 예술은 모방이라는 전래의 개념을 고수하며 인간의 존재와 존재의 양식은 삶을 전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유일한 구조이다. 이 소설 또한 삶과 사회를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p> <p>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엄석대로 전형화 된 권력,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쉽게 달아오르고 무섭게 변질하는 반 아이들의 기회주의 근성을 그려나가면서 권력의 무상함과 거기에 기생하는 변질적 순응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고자 함.</p>		

2-2. 교실의 상황과 사회의 상황의 비교

5학년 교실상황과 당시 사회의 상황 비교	
교실	<p>엄석대는 선생님이주는 권한과 힘 즉, 권력 앞세워 성적에 비리를 일삼고 급우들을 괴롭히며 그의 말을 거역 할 시 주변인을 통한 위협</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완전 독재의 공포정치</p>
사회	<p>1970년대 사회는 3선개헌과 10월 유신으로 박정희의 영구 집권의 확실시되고 중앙 정보부가 뒤를 받쳐주어 말조심하지 않으면 남산으로 끌려가 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던 시절..</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완전 독재의 공포정치</p>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에 순종하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권력이란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몰이해와 밀어주기, 결과만을 중시하는 안일한 사회풍조에서 오는 것을 비판 ☞ 무능력한 지식인들의 허무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소설의 특성답게 권력에 좌지우지 되는 사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음 ☞ 민주적인 인물로 그려진 한병태를 통해 권력에의 저항을 시도하지만, 교묘하게 원력을 이용하는 독재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그림 ☞ 권력의 힘에 결국 복종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당시의 권력 구조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을 비판

6학년 교실상황과 당시 사회의 상황 비교	
교실	<p>새 학기 새로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밝혀지는 비리와 엄석대 왕국의 붕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권력의 붕괴</p>
사회	<p>1979년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박정희 사망</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권력의 붕괴</p>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 권력의 붕괴라는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권력이 지닌 허구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권력의 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 반 아이들의 가장 부정적인 일면을 제시한 것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함을 내세워 당시의 사람들을 저열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절대 권력의 몰락을 극명하게 제시한 부분으로 절대 권력에 지배받던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 민주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끌어 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부조리로 흐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작품 속의 인물 분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속에는 많은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인물들이 모두다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작품속의 인물을 분석해보는 것도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엄석대와 한병태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 동화되고, 나중엔 좌절을 맞게 된다. 먼저 엄석대의 경우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반을 지도해나갔던 인물이다. 반 아이들과 5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암묵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펴나갔던 인물이다. 반면에 한병태는 서울의 학교에서 시골의 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이다. 서울과 다른 시골학교의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엄석대 왕국을

붕괴시키려고 하지만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의 냉대에 풀이 죽고 만다. 결국 권력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인물의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3-1. 한병태와 엄석대

	엄석대	한병태
성격	권위적	개혁적에서 순응형으로 바뀜
특성(태도)	뛰어난 리더쉽을 지님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
인물형	명석한 두뇌 및 뛰어난 사건파악능력을 지닌 인물	다른 사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존형 인물

본 작품의 배경은 학교이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5학년 시절과 6학년 시절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작품인데, 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인물로 주인공인 엄석대와 한병태 외에 5학년 담임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이 있다. 이 두 인물은 확연하게 대조가 된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공간으로 구분한 작품의 심층 분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5학년 담임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

- ▷ 5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시대착오적이며 구시대적 인물)
 - 무능력하고 무기력함.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패배자적모습을 보임,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안일한 성격. 엄석대의 잘못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도 그것을 묵인하는 비겁한 인물
- ▷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짧고 정의감에 넘치는 인물)
 - 엄석대의 비행을 밝혀내고 그의 악동짓을 무섭게 단죄한다.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나 부정한 방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싸우는 인물. 안정적인 타협보다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지만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겠다는 인물.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두 담임선생님은 모두 다른 성향을 띠며 작품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5학년의 담임선생님은 독재 정치 하에서 이를 묵인하며 방관한 인물이다. 이는 이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당시 사회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6학년 담임선생님은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로 당시의 교실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이를 바꿔나가기 위해 반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선생님이다.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당시 사회의 인물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을 살펴보면 반 아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작품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아이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3-3. 반 아이들

엄석대를 독재자로 비유한다면, 반 아이들은 독재정권하에 피동적인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반 전원의 아이들이 피동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석대에 대한 5학년 담임선생님의 신임과 더불어 엄석대가 이끄는 반은 그 내막이야 어떻든 간에 항상 우수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분명 반 아이들 내면에도 민주적인 학급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지 않았고, 사소한 불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소한 불만과 독재자를 몰아내는 혁명의 성공 가능성 및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하여 사소한 불만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독재정권하의 안정된 반 운영을 서로 저울질해 보았을 때 그들은 변화와 개혁보다는 엄석대의 독재정권에 손을 든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두 명의 아이들의 불만이 있다할지라도, 엄석대를 은근히 지지하는 대중심리에 묻혀 버리기 일 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반 아이들은 독재정권의 잘못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피동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그러진 영웅과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당시의 부패된 사회를 소도시의 국민학교 교실로 옮겨놓은 작품으로 그 작은 교실의 대장인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와 그를 향한 미움과 경외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병태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다.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며, 급장에게 학급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맡기기 일쑤였던 담임선생님과 석대에게 꿈쩍 못하는 아이들은 석대가 일그러진 영웅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되지만 새 담임선생님이 등장과 함께 조금씩 삐걱거리던 그의 영웅 노릇도 끝이 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어느 사회에나 약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그늘에 있으려는 약자들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따라서 방관자, 일그러진 영웅, 약자 이런 인물들이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은 나타나기 힘들것이다. 결국 이 소설을 통해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영웅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영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시대의 여느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정의라는 명목 하에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의 시행착오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담임선생님의 모습도 일그러져 있다.

	일그러진 영웅	영웅
인물	엄석대	6학년 담임선생님
이유	담임선생님의 보호아래 엄석대는 권력의 중심에서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그의 권력은 바닥으로 내려앉고 만다.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성격을 지녀 엄석대의 비리를 밝히며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반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사회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5.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교육적 시사점

이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행동등을 통해서 우리는 소설전반에 깔려있는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실 내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지적한다. 소설에서 보면, 반장인 엄석대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학급의 일을 그에게 모두 맡기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교사인 5학년 담임선생님이 등장한다. 그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 바뀌야 할 의욕을 잃었고, 개선의 시도를 조금이나마 했었지만, 실현되지 않음을 보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게 된다. 만약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단 한사람의 말(한병태)의 말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적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뿌리 뽑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경우는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석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은 학교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어느새 그 편안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편안한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한병태가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잊은 선생님 눈에는 방해자,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이로 보일 뿐 이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둘째, 교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왕따 문제를 지적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다. 엄석대는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반감을 품는 풋내기 전학생 한병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그의 말에 따르는 학급의 모든 아이들 또한 그를 도외시 한다. 그것 또한 한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도한 물리적 처벌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5학년이 지나고 6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 온 담임선생님은 교실의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알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반장인 엄석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독립적이고 자유적이지 않는 독재의 학급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기 시작한다. 그리하고 석대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폭력이란 것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본래 목적은 좋더라고, 결국 그를 이루어 내는 수단은 석대의 폭력을 이기는 폭력이 되어, 석대와 그다지 다를 만도 하지 않다는 것이다. 폭력과 다를 바가 없는 물리적인 체벌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타이렀다면, 비극적인 결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나친 물리적인 처벌은 학생으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하고, 학생이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좋은 결말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지역간의 학교 시설의 차이를 지적한다. 주인공인 한병태가 아버지를 따라

서울의 명문학교에서 시골의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러면서 비교를 시작한다. 웅장하고도 세련된 지난 학교와는 달리 새로운 학교는 낡은 일본식 시멘트 건물 한 채와, 검은 타르를 칠한 판자 가건물로 이루어진 학교에 실망하는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한 교육이 서로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공평하게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가치관들이 모여있는 교실은 그야말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소중한 하나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다양성들을 무시한채 무관심하고 안일한 교사는 교육에서 실행되어야 할 인간존중의 실현성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무책임한 사람이며,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잡아 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작품은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 조명해 본 작품이다. 절대 권력이 지닐 수밖에 없는 허구성, 그리고 그 허구성의 형성 배경은 주변의 방조와 묵인에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여 형성된 권력이 제도와 질서라는 미명하에 군림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질서에 기초해 있는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변혁에 대한 대중의 욕망과 그 실천이 때로는 간교할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춘기 고녀와 정신적 성장 -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⁶⁾은 실제로 한 고등학생의 일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응시하다 보면 시나브로 그 작은 세계의 작은 목소리로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된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나’라는 인물과 윤수, K, 그리고 왜냐 선생이다. 이 글은 ‘나’라는 인물의 일기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일기를 통해 흔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한다. 자신의 일기장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는 이유는 일기는 자신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형식을 일기로 쓴 이유는 작품 속 현실을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서술전략이다.

1. <읽기>에 대한 태도

소설의 길 이야기는 간단하다. 한 고등학생이 허생전을 배우는 국어 시간 전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자기 심경을 일기장에 적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허생전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은 별명이 왜냐 선생님이시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왜냐>라는 질문을 잘 던지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그 왜냐 선생님은 허생전이란 소설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어서 허생이란 인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친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토론시킨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혀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와 관련하여 왜냐 선생은 허생전수업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난다. 이에 윤수라는 아이가 운동장 한복판에서 홀로 침묵시위를 하는데, 주인공이 윤수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것이 외부이야기다. 이 외부이야기 안에 내부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 내부이야기에는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원초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읽어가는 혹은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포함된다. 내부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읽기>의 올바른 태도이다. 다음과 같은 왜냐 선생님의 강의 발언에서

6) 김동훈, 『교실에서 세상읽기』, 대경출판, 1997.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만사가 그래요. 밑동을 보려고 해야 돼요. 가지 끝이나 잎사귀만 보면 혼란에 빠지기 쉽죠.
……

2)……우리가 이렇게 소설을 읽고 궁리하는 건 바로 그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3)말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예요. 그게 전달하는 뜻이 그 속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결정되고 변한다는 얘깁니다. 산은 언제나 산이지만, 그걸 가리키는 산이라는 말은 등산가가 쓰는 경우하고 터널기술자가 쓰는 경우에 그 느낌과 뜻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1)에서는 세상과 현실 읽기의 기본태도를, 2)에서는 소설 읽기의 기본 태도를, 3)에서는 말 읽기의 기본 태도를 명시하고 있다.

허생의 행동, 허생 읽기. 윤수의 행동, 윤수 읽기. 나의 행동, 나 읽기. 읽기는 언제나 내가 한다. 허생전 읽기는 꽤 재미가 있는데, 다른 읽기는 왜 그렇게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 허생 읽거나 나 자신 읽거나 갈피를 못 잡기는 마찬가지다.

말 읽거나 소설 읽거나 인간 읽거나 세상 읽거나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헝클러진 관계, 일그러진 관념, 왜곡된 명분, 떠도는 기호의 혼란스런 수풀을 헤치고 사상(事象) 그 자체에 육박해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던가. 읽는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포개어 놓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

그런데 작가 최시한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과감하게 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포개어 놓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왜냐 선생님이 연암의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과 작가 박지원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한계로서 지식인적인 한계를 읽어내고 비판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실천적 노력으로서 전교조 운동을 하는 것⁷⁾이 그 첫번째라면, 허생전을 읽고, 왜냐

7) 왜냐 선생이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허생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이다. 허생은 자기가 선비 또는 사대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고 만 인물이었다.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지만 그런 가회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결여되었던 인물이 바로 허생이라는 것이 왜냐 선생의 해석이다. 이를 통해 왜냐 선생은 전교조에 가입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선생님을 읽은 윤수가 운동장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그 두번째요, 허생전을 읽고, 왜냐 선생님을 읽고, 윤수를 읽은 주인공이 그 읽기의 과정에서 말의 참의미를 발견하고 윤수에게로 달려가는 행위가 그 세번째라 할 수 있겠다.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결구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창 밖을 보았다. 땡벌이 쏟아지는 누우런 운동장 한가운데에 누가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윤수였다. 무릎 앞에 무어라 적힌 종이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종이에 적힌 말은 보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우루루 창가로 몰렸다.

“자리에 앉아라, 앉아! 저, 저 녀석이 퇴학당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온몸의 움직임을 또렷이 느끼면서 복도를 지나, 운동장 가운데로 뛰기 시작했다. 윤수가 땅바닥에 누워버리는게 보였다. 내가 엎으러 가는지 엎히러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 선생님의 허생전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인용된 부분에서 “그 종이에 적힌 말은 보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다.”라든지 “왜냐 선생의 허생전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포개어 놓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글 읽기와 현실 읽기, 나아가 현실 살아가기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라는 인식론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⁸⁾

2. 왜냐 선생의 수업

2-1. 허생전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허생전을 수용한 부분은 바로 허생이라는 주인공만을 수용하였다. 그 인물이 현실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작품속 국어선생님인 왜냐선생이다. 장소 또한 허생전에서 나오는 현실을 학교에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허생이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이 학교에서 왜냐 선생이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교사가 이끄는 주입식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8) 우찬제, 소설과 사상이 만나는 언어 공간, 『상처와 상징』, 민음사, 1994, pp.164~170

비유된다고 할 수 있다. 허생의 기교와 호탕함을 왜냐 선생 역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허생은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왜냐 선생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교장과 싸우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다 학교에서 왜냐 선생이 쫓겨나는 모습과 허생이 이완 대장을 해치려하다가 사라진 점을 비교할 때 묘한 일치감이 느껴진다. 허생은 분명 옳은 일을 했다. 그 당시에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도왔으며 도둑들을 새 삶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이완 장군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한 허생은 왜 한계점을 지니는가.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자는 허생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배경은 전교조 설립과 활동으로 미루어볼때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로 추측된다. 이 당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수업방식의 주류를 이뤘다.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그 현실에 머물러 있고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 교장이나 교감 나머지 선생님들 역시 허생전에 나오는 양반이나 사대부 계층을 보는 듯하다. 허생전의 배경과 비판적 지식인으로 그려지는 허생을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학교라는 배경과 왜냐 선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화자는 허생전을 빌려온 것이고 허생전의 한계는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의 왜냐 선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왜냐 선생의 수업방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교재는 ‘허생전’이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허생전읽기는 책읽기가 왜냐 선생의 첫번째 수업을 통한 인간의 마음 읽기이며, 왜냐 선생의 두번째 수업을 통해 시대나 사회 읽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 선생이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허생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이다. 허생은 자기가 선비 또는 사대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고 만 인물이었다.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지만 그런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결여되었던 인물이 바로 허생이라는 것이 왜냐 선생의 해석이다. 이를 통해 왜냐 선생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그러나 허생을 통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 접근하려던 왜냐 선생의 수업시간은 계속되지 못한다. 결국 왜냐 선생도 허생과 같이 사회에서 쫓겨나고 만다.

2-2. 인간의 마음 읽기

왜냐 선생의 첫 번째 수업에서 “왜 과일과 말총을 죄다 사 모았을까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허생의 생각 즉허생전을 쓴 연암 박지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 과일은 제사나 잔치에 주로 쓰였고 말총은 양반들이 쓰는 망건과 갓을 만드는데 쓰였는데, 이것은 주로 양반들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이다. 즉 허생은 과일과 말총을 사 모으는 행위를 통해 양반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 선생이 내린 결론은 ‘소설을 이루고 있는 말은 말속에 또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속뜻을 풀어내는 실마리도 소설 안에 갖춰져 있다. 그걸 읽어 내려면 행동의 앞 뒤 관계를 따지고, 인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여러 가지 관련 지식과 사실들을 참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왜냐 선생의 첫 번째 수업은 인간의 마음 읽기라고 할 수 있다.

2-3. 시대나 사회 읽기

왜냐 선생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허생전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근거 삼으면서, 허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얘기해 봐요.”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이 두 번째 수업 내용에서 허생은 돈을 목적으로가 아닌 수단으로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냐 선생이 다른 각도에서 소설을 보면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죄다 사모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볼 때, 당시 사회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작았고 통치자들이 백성들 살아가는 형편에 얼마나 무관심했나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왜냐 선생의 두 번째 수업은 시대나 사회 읽기라고 할 수 있다.

2-4. 왜냐 선생의 허생전 해석

허생은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고, 백성을 돕고 북벌책 같은 국가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 들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농공상을 구별하던 당시의 규범, 때가 아니면 초야에 은둔한다는 선비의 처세관에 묶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줄 뿐,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허생의 한계요 허생전을 지은 연암 박지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반계층의 생각, 사대부가 쓰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란 말에 왜냐 선생의 생각이 잘 나타나있다.

3. 작품속 작가의 목소리.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꾸며낸 말은 믿음성이 없다.”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 작품에서 ‘윤수’의 늘변(訥辯)과 ‘동철’⁹⁾의 달변(達辯)이다. 진실한 말, 곧 정의나 양심을 왜치는 목소리의 인물은 말더듬이다. ‘나’는 그런 윤수의 말더듬이 답답하다. 권력과 체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크고 달변인데, 그 권력의 남용(濫用)에 대항하는 목소리는 작고 늘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고 늘변인 목소리에 귀기울여한다. 이 소설은 ‘윤수’를 통해 그 작은 목소리의 힘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왜냐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직당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은 ‘나’가 보고 들은 몇 가지 암시적인 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냐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듣는다든지,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과 왜냐 선생님이 싸웠다는 얘기를 전해듣는다든지, 수업 중에 교감 선생님과 낮이 설은 어떤 인물의 감시를 느낀다든지, 결국 왜냐 선생님의 허생전 수업은 교감 선생님과 낮이 설은 어떤 인물에 의해 중단된다.

이 소설의 감동은 마지막 부분에서 윤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커진다. 그러나 그런 윤수의 행동마저도 작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라는 관찰자의 입장¹⁰⁾에서 윤수의 행동을 서술한다.

창밖을 보았다. 땡별이 쏟아지는 누우런 운동장 한가운데에 누가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9) 동철이 발표하는 장면에서 동철은 항상 일어서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위에 군림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동철’은 억압세력 또는 당시 사회의 지배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10)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의 후속작인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등장인물은 역시 ‘나’와 ‘윤수’다. 그러나 ‘나’가 ‘윤수’의 반항적 행동에 공감한다는 면에서 발전된 인상을 준다.

윤수였다. 무릎 아래 무어라 적힌 종이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종이에 적힌 말은 보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렸다.

어리고 연약한 학생의 양심적 행동에 이 소설을 읽어 본 독자는 가슴속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윤수를 관찰하는 ‘나’와 같이 독자는 윤수를 바라보게 되는 이 소설의 독법 때문에, 그 감동은 양심의 고문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로 인한 선생님들의 강제 퇴직’이라는 사회적 사건은 소설로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운 주제다. 그러나 작가는 그 전교조 문제를 국가의 억압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한 고등학생의 양심적 생각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

4. ‘나’의 바로서기

‘나’라는 인물이 투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머리에 찍혀 버린 듯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여기서 ‘나’라는 화자가 표현한 “눈보라는 그의 적들 같다. 헤어진 군복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다. 그렇다면 총과 탄환과 그의 빛나는 눈은 적개심이요 투쟁정신을 뜻한다.”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의 전개 암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그에 반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져 있다.

‘나란 사람은 누구냐? 총이 아니라 연필을 든, 투쟁정신으로 빛나는 눈이 아니라 신경을 너무 써서 핏발이 선 눈을 가진, 투사가 아닌 환자. 환자? 어떤 환자?’ 이 단락에 화자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자신의 생각은 분명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홍길동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돕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앞에서 분명 화자는 허생과 투사를 같다고 표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자신을 허생과 같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생이지만 허생과 같이 말만 할 줄 알지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피하기만 한다.

‘나는 무엇에 관심조차 두기가 싫고 학교에 불이라도 나서 얼른 집에 가게 되었으면 하였다. 책마다 깨알같이 박힌 글과 누가 하는 그 어떤 소리도 모두 거짓말 같고, 눈보라치는 산마루의 그 투사가 자꾸 어른거렸다.’ 여기서는 화자가 허생과 같고 투사와 같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의 인물 간 관계의 특징은 그 관계의 해체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왜냐 선생과 학생들과의 관계, ‘나’와 ‘K’의 관계, ‘윤수’와 ‘동철’의 관계, 모두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서로의 대립 또는 어긋남으로 인해 해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이 문제를 다루기는 다루되 그 속에서 사색적인 한 인간의 내면적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옥죄고 있는 기제, 억압 요소들을 해체하고 폭로하고자 했다.¹¹⁾ 하지만 작가의 주체에 대한 애정은 ‘관계의 해체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을 이루게 한다. 이는 최시한 소설의 중심 테마이다. 진정한 주체의 정립은 왜곡된 관계의 해체와 더불어 상호 주체성의 새로운 관계를 동시에 진행시켜나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시한 소설을 통해 통찰할 수 있다.

11) 최시한, 성민엽, 진정한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對談>, 『문학과 사회』 (통권 37호: '97. 봄) p256.

Ⅲ. 교육소설의 교수-학습방안

1.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의 교육적 의의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20여년의 교사 생활이라는 전상국의 체험이 짜임새 있게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아름답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반에서 폭력의 왕으로 군림하던 불량 학생이 담임과 반장의 교묘한 술수로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담임과 형우의 위선적이고 교활한 모습에 전율하게 되며, 사회를 축소해놓은 듯한 교실의 권력 구도에 ‘이런 것이 바로 사회인가’라는 암담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절대 아름답지도, 밝고 희망차지도 않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작품은 교훈적이고 아름답다. 대부분의 사람은 착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될 뿐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물론 모든 소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은 모두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만 그리고 있다. 교과서라는 매체가 아이들에게 끼칠 교육적 영향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거의 세상의 모든 일을 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선(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상의 눈물」은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가장 현실감 있게 ‘사회’ 또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려냈다. 교실이라는 곳은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며, 삶의 한 부분이며 교실 또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생존의 장이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교실이라는 좁은 세계 속에서 다양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그려 넣었다.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그런 소설로 교과서에 이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들어 있다. 두 소설이 똑같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유사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많은 현직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두 소설을 같이 비교한다. 하지만 「우상의 눈물」이 더 현실적으로 잘 구조화된 소설이라고 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그 리얼리티를 추구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현실세계에서 과연 엄석대라는 인물이 쉽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얼핏, 「우상의 눈물」에 나오는 기표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상의 눈물」에 나오는 불량학생 기표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반장 엄석대는 엄연히 다르다. 기표는 반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리 늑대처럼 고독함을 추구하는 불량 학생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반장까지 맡고 장기간 합법적인 권력을 누리는 석대의 위치는 다소 무리라고 본다.

둘째, 사건을 관찰하는 이유대와 한병태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병태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사고를 한다. 물론 「우상의 눈물」에서 나오는 유대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곧 성인이 되는 고등학생과 12살의 초등학교 학생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이다. 고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을 알 수도 있고 사람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저의를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등장인물들은 아직도 그런 머리싸움보다는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초등학교 학생일 뿐이다. 때문에 영악하고 인생의 연륜마저 느껴지는 병태의 모습은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의 역할이다. 두 소설에 나오는 담임선생들은 다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상의 눈물」에서 나오는 선생은 비열하고 위선적이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첫 번째 담임은 무사안일만 추구하고, 두 번째 담임은 정의감에 불타오른다. 하지만 리얼리티를 추구한다면 「우상의 눈물」에 나오는 담임은 현실성이 있다. 성격이 위선적이고 비열하긴 하지만, 그 행동은 담임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학생 지도’였을 수도 있다.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겉보기에 별 무리가 없이 처리한다는 점이 비열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다. 그러나 엄석대의 위치를 견고히 해주는 첫 번째 담임은 이해조차 되지 않으며, 정의감에 넘치는 두 번째 담임은 이해는 되지만 매우 작위적이다. 마치 이제껏 일어난 석대의 횡포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죄인을 추궁하는 형사처럼 석대를 몰아세우는 새 담임선생님의 등장은 개연성이 매우 떨어진다. 석대의 비리를 계획된 각본처럼 꼬집어 내는 그는 마치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권선징악적 결말을 위한 준비된 배우 같다.

결국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정의감 넘치는 담임의 힘을 업고 소시민적 아이들 즉 선(善)이 이기며, 「우상의 눈물」에서는 악은 아니지만 악보다 더하다고

느껴지는 위선적(僞善的)인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승리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비해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우상의 눈물」이 학생들에게 더 부정적일 수 있다. 비인간적인 담임과 비열한 권력 쟁탈전이 난무하는 이 소설이 비교육적이라고 느껴질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삶의 추함과 악함을 들추어내는 ‘착하지 않은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우상의 눈물」은 매우 사실적으로 박진감 있게 교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쓰디 쓴 인생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최시한의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왜냐선생의 수업방식을 깨우칠 수 있었다. 실제로 작가 최시한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소설을 지도하는 국어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교육관을 밝힌 바 있다.

작가 최시한에 의하면 소설교육은 통합적인 언어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소설을 가지고 신장시킬수 있는 언어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하며 논설문, 설명문과는 다른 변별적인 그 무언가를 연구해야한다. 소설의 특수성에 연연해서 그 특징을 열심히 가르칠 필요는 별로 없으며 학생들에게는 소설을 통해 독해력,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만 길러주면 된다. 즉 고급의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력과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능력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¹²⁾

앞에서 살펴본 최시한의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의 왜냐선생의 가르침은 국어과교사로서 참고할만한 소설교수법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박지원의허생전을 읽고 왜냐선생의 핵심적인 질문에 생각하고 답하면서 작품에 깔려있는 가치의식을 깨닫게되고 그에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소설교육의 목표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설교육의 지향점과 최시한의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의 왜냐선생의 소설교수법을 토대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통해 제시해보겠다. 또한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앞에서 살펴본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세 작품을 비교하여 작품의 의미를 되새길수 있도록 하겠다.

12)함께 여는 소설교육, 2004, 여름.

2. 읽기 전 학습 - 학습 목표와 교수 준비

♣ 학습 목표

1. 소설 속에서 근거를 찾아, 각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자.
2. 화자의 태도를 통하여,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
3. 교실 속에서 드러난 두 개의 권력과 이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 학습 준비 사항

- 아이들에게 미리 「우상의 눈물」을 읽어오도록 한 뒤, 수업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아이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아이들에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도 읽어오게 한다. 이는 세 작품을 비교해 각각의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이다.

♣ 유의 사항

- 위선적인 권력층(담임과 형우)과 폭력적인 기표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토론해보도록 만든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기표를 철저히 악한 인물로는 그려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순수한 악(惡)이라는 것, 즉 담임과는 달리 어떠한 숨은 의도나 의문스런 점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과 단순히 화자(유대)의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위선적인 담임의 모습이 비판적으로 그려졌다고 해서, 절대 별거벗은 폭력이 옳다거나 매력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 읽기 중 학습 - 소설 다시 읽기와 토론 학습

① 기표에게 린치 당하는 유대

나는 그들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몸부림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다섯 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소리질러 봐, 죽어버릴 거니, 한 놈이 컷가에 속삭였다. 나는 드디어 허물어져 내리듯 의식을 잃어 갔다. 그런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표가 씨부려 댄 한 마디 말소릴 놓치지 않았다.

——메스껍게 놀지 마!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이 내게 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재수파들이 나를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메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통해, 기표가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및 권력(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장면은 기표를 중심으로 모인 재수파의 잔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린치를 당하는 유대에게 있어 기표의 존재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다. 단순히 메스껍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상황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기표에게 ‘절대적인 권력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이 부분은 기표가 가진 권력의 절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과정을 보여준다. 메스껍다는 이유만으로 유대를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② 담임선생의 연설

"이제부터 육십육 명이 운명을 함께 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선생은 과학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써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 속의 1년이었던 것이다.

"고삐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삐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삐를 쥐어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중략)-- 내가 불쑥 일어나서 말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의 저의를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유대의 반은 결국 ‘서로 사랑과 신뢰로써 하나 되는 반’이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는 담임의 ‘자율’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봅시다.

담임선생은 ‘우리’와 ‘자율’이라는 말로 학급의 결속을 강조한다. 물론 집단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해 ‘항해’라는 것을 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교실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담임이 말하는 ‘고삐’가 진정

학생들에게 주어졌느냐는 것이다. 유대의 날카로운 지적은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교실 상황을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다. 소설 속에서 보여 지는 교실의 상황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학교의 규칙이나 방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거스를 경우에는 협동과 조화를 깨뜨리는 ‘역행 가지’로써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는 결국 “담임선생의 ‘우리’ 혹은 ‘자율’이라는 개념은 학교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목적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다. ‘역행 가지’인 기표의 가출 소식을 듣고 학생보다는 영화 중단을 걱정하는 담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허울 좋은 이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을 배제하고 포섭해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반장자리를 거절하는 유대

뭔가 아쉬워하면서도 엄마는 내 뜻을 따라 주었다. 반장을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내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극성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무서운 구속이었다.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 받는 데서 얻는 마음의 안일이 내게는 더 좋았다. 나는 고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기표 같은 애들이 누리는 지배욕 그 안쪽에 몸을 뒤틀고 있는 고독의 그림자를 나는 어렵풋하게나마 본 것 같았다.

▶ 이 지문에서 나오는 권력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해봅시다.

▶ 지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대의 성격을 말해봅시다.

권력은 타인에 대한 지배욕에서 나오지만, 이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권력의 절대적인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옴아매는 구속력과 타인과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유리감이 자라나게 된다. 이와 같은 권력의 고독을 일찍이 알아차려 버린 유대의 영악함은 그로 하여금 타인과 뒤섞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안일을 선택하게끔 했을 것이다. 이렇듯 ‘권력자의 고독’보다는 ‘다스림 받는 안일’이 좋다는 유대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매우 조숙하고 영악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조숙한 그의 성격은 소설 내내 날카로운 관찰력과 판단력을 빛내며 그의 관찰자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게 된다.

④ 최기표를 신경 쓰는 담임선생

"어떤가,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가지를 귀땀해 달라는 것일 게다. --(중략)--

"최기표, 그놈 괜찮을까?"

담임선생이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내보인 것처럼 불유쾌한 기분이 되어 얼굴을 돌렸다. --(중략)--

어떻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사이에 기표에 대해서 이처럼 깊이 파악하고 있다니——과연 기표는 이름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선생과 최기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최기표에게 승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의 담임선생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 싸움에 임형우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도 썩 흥미 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네들 싸움을 구경한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 ‘역행 가지’가 뜻하는 바를 말해봅시다.

담임은 벌써부터 ‘역행 가지’로서 최기표를 꼽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행 가지라는 것은 앞으로의 ‘항해’, 즉 교실 운영에 방해가 될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무사안일한 일 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움직일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기표는 그 점에서 매우 거슬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소설의 대립 구도가 담임선생과 최기표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읽어낼 수 있다. 날카로운 판단력의 소유자인 유대는 이 치열한 싸움의 승산이 기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소설의 전개가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독자는 더 큰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이었다. 우리들의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룹 과외선생처럼 철저하게 얼굴에 철판도 깔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문제는 지배(支配)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었다. 그네들이 옛날 훈장이 누렸던 권위가 고스란히 쥐어주길 바랐고 실상 그러한 권위만이 변화된 가치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코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엄마는 촌지 봉투로 담임선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⑤ 교사의 권위에 대한 유대의 생각

▶ 이 지문을 통해 교실 내의 권력과 지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학생들이 옛날과는 달리 교사를 우습게 본다며 성토했던 담임을 보고, 유대는 존경스럽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비판한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교실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와도 같다.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언가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을 요구하게끔 만든다. 그에 들어맞는 것이 최기표의 채수파 무리들이다. 그들이 선이냐 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완벽하느냐는 정도가 중요하다. 실상 이 (기표가 가지고 있는) 교실 권력의 불가침성은 아이들의 이런 나약한 소시민적인 근성을 뿌리코 하고 있다. 채수파들의 권력적 질서는 변화된 가치로 인한 혼란스러운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 존재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⑥ 유대에게 협조를 구하는 담임선생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미 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 지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았다.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었다.

▶ 담임선생과 유대가 생각하는 ‘우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유대는 담임선생의 밀고자 노릇을 한 전적이 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바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의 행위는 ‘우리’를 해하는 첩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결국 담임선생이 말한 ‘우리’는 배제와 포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상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분히 내포한 것이다. 물론 유대가 생각하는 우리와 담임이 생각하는 가상적인 구성물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 유대가 말하는 ‘우리’는 좀 더 정신적인

유대를 생각하며 물리적인 구성원을 가리키지만, 담임이 말하는 ‘우리’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배제하고 남은 구성원을 뜻한다.

이 지문을 통해 교실이라는 장소가 다분히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권력의 장(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실이라는 곳은 아이들을 모아 놓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알력과 권력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기표는 이를 ‘폭력과 악’에서 찾았으며 담임은 ‘우리와 자율’이라는 미명에서 그리고 형우는 ‘우정과 봉사’에서 찾고 있다.

⑦ 기표에 대한 유대의 묘사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나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화될 수 있는 행동거지를 해 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독기를 음울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대부분 3학년이거나 졸업했다)은 기표가 것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 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 기표의 권력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기표의 권력은 그의 포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즉 그의 견고하고도 절대적인 악함에 기인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교실은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다. 기표의 위악적인 행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지니며, 기표가 다른 학생들에 대해 갖는 힘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의 권력의 기원에 대해 ‘말하길 꺼려하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라고 치부해버리려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스스로도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지만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다. 그가 고자질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기표를 다소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 신과 악마에 대한 이야기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가 통할 만한 집안의 어떤 형에게 말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 신과 악마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또한 여기서 드러나는 신과 악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발표해봅시다.

▶ 선과 악은 대립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시다.

이 부분은 선과 악, 담임(또는 형우)과 기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기표'는 순수한 악마로 다소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그와 대립하는 '형우'와 '담임'은 위에 인용한 '신'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의리와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위선자로 그려져 있다. 즉, 신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는다. 악과의 대립을 통해서만, 선의 위대함이 더욱 강력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기표라는 존재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존재는 '우리'로 표상되는 지배의 논리를 재생산하기 위해 담임과 형우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즉,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며 그들의 관계 또한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 필수불가결한 관계(악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⑨ 기표를 위한 부정행위를 기획하는 형우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최소한 반장인 내가 기표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라.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 일이 내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모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중략)--

허, 허허, 허허허……감독선생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기표의 얼굴이 노오랄게 질렸다.

"자, 모두 앉아요"

감독선생이 뭔가 사태를 파악한 듯 이삼십 명의 아이들을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 그 나이 많은 감독선생이 말했다.

"오늘 이 일은 전연 없었던 것으로 해 두기로 한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이쪽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공은 정신이나 우정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여러분 모두의 결의는 대단히 훌륭했다"

일은 이런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표를 살폈지만 그는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끝 시간인 셋째 시간도 별일 없이 끝났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 반장의 행동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때로는 자기 오만과 만족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봅시다.

부정행위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일까. ‘자신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모르도록 해달라’는 것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 그리고 (앞부분에서 나오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냐?’라는 유대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와 없다고 목살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독자들은 여기에 모종의 계략이 감추어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교실 권력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표의 권력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기표는 어리둥절함을 넘어,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린다. 시험 시간에 벌어진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당황해하는 기표의 모습은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권위의 징후로 보여 진다. 아이들의 ‘우정’과 ‘우리’를 위하는 정신이 기표라는 절대자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반의 대체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⑩ 담임선생과 형우의 관계를 알고 놀라는 유대

"웬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던 말입니까?"

내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선생은 좀 멍찐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임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 온 짓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 준 것도 알고 있다"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음흉스러운 심보, 알면서도 모른 체시치미를 떤 그 저의는 무엇인가. --(중략)--

"그때 그 일,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중략)--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 집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씩씩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 유대가 형우를 유능한 반장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한 느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봅시다.

교실 안팎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담임이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화자는 충격을 받는다. 어른들의 음흉스런 심보와 저의가 무서웠다는 그의 말은 기표를 상대로 벌어진 일들이 담임과 형우의 계획 속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 짐작은 조금 뒤 형우와의 대화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

형우의 이해 못 할 행동들이 담임선생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권력이었다는 것을 안 화자는 두려움과 씩씩함을 느낀다. 유대는 형우가 유능한 반장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동이 비정한 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씩씩한 느낌을 받는다. 형우는 일련의 계획된 행동들을 통해, 드디어 기표를 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교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 체계를 얻게 된다. ‘우리’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배제와 통치의 비정한 권력 체계의 일면을 화자는 이미 엿보았기 때문이다.

⑪ 기표를 위한 연설을 하는 형우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교길에서 내게 들려 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을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중략)--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 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 교실 내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봅시다.

▶ 형우의 행동이나 태도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기표가 권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이들의 의도라기보다는 실상 담임의 의도였다. 반을 무사안일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반장인 형우를 이용한 것이고, 형우에 의해 선동된 아이들의 ‘무의도적인’ 일련의 행동들에 의해 기표는 권좌에서 내려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권력을 뒤집겠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결국 권력이 기표에게서 형우(즉 담임)에게로 옮겨갔을 뿐이다.

런치 뒤에도 이 사실에 대해 굳게 다문 형우의 계산된 행동은 그를 일약 아이들의 영웅으로 만든다. ‘이미 이빨 뺏 뺏’이라고 기표를 표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형우와 기표의 관계는 시험 사건과 런치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뀐다. 형우는 기표에 대한 적대감을 씻은 듯이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

그는 연설을 통해 동정과 봉사라는 관념을 들먹였고, 기표에게 가난이라는 취약점을 덧씌움으로써 그를 불쌍하고 돌보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연설은 기표를 공식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 뒤에는 기표의 힘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있다.

⑫ 변화된 기표의 모습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던 체구마저도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적에 '치이즈'하고 웃듯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미소 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써 우리 반을 돌봐주었다. 반장 형우는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덩달아 들떠서 술렁거렸다.

▶ 기표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기표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든 형우의 연설 이후로, 교실 내의 기류는 변화했고 기표 자신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다. 신화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급우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일개 가난한 학생일 뿐이다. 포악하고 섬뜩했던 기표는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워하며 어색하게 웃는 왜소한 학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⑬ 사라져버린 기표

그네는 몸을 일으켜 우리에게 굽실거리며 때 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네는 우리의 손을 더듬어 쥐고 싶어했다.

"자, 이제 고만 돌아가십시오. 애들하고 의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담임선생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그네는 교무실을 나가며 자꾸 아쉬운 듯 우리들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그네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소리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투덜거렸다

"내일 천일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나?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밀의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 '우상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봅시다.

▶ 담임이 내걸었던 가치('우리'라던가 '자율')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의 태도와

성격은 어떻게 보이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아요.

기표의 가출이나 기표 어머니의 하소연은 관심도 없는 담임에게서 비정함을 느낄 수 있다. 영화 제작 일정만을 걱정하는 그를 보면, 그가 강조하던 협동이나 자율 또한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가출한 기표는 이러한 권력의 비정함과 비인간성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지문을 통해 확실히 담임이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표의 가출이 걱정되어 찾아온 그의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어내고 나갔던 담임은 흥분을 참지 못한 채 욕설을 내뱉는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악(기표)을 이용하는 담임과 형우의 무서운 위선이 유대의 관찰과 서술에 의해 폭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어쩌서 기표가 무서움을 느끼고 집을 나갔는지 잘 알 수 있다. 우상(기표)은 결국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 초라하게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4. 읽기 후 학습 - 심화 학습

① 각 인물의 성격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도 좋아요.)

- | |
|---|
| <p>① 최기표 → 잔인하고 교활한 문제 학생. 재수과의 우두머리. 갖은 비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혹평을 별로 받지 않는 인물. 학년 초에는 학생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다가 형우의 계략으로 평범한 아이로 바뀜.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술책에 무서움을 느끼며 학교를 떠남.</p> <p>② 담임선생 → 학생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장악하려는 교사. 무사안일한 일 년이 목표임. 치밀한 성격에 권위주의적인 인물. 학급 관리에 능숙하다.</p> <p>③ 임형우(반장) → 성적 좋고 통솔력 있는 반장. 담임선생과 치밀한 계략을 세워 기표를 동정 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로 만들. 학급을 헌신적으로 잘 이끌지만 위선적인 면이 있음.</p> <p>④ 이유대(나) → 다소 소심하면서도 영악한 성격을 가진 우등생. 합리적이며 날카로운 판단력의 소유자. 자존심이 강하고 상대방의 심중을 잘 감지하는 학생. 관찰자로서의 예리한 면모가 돋보임.</p> |
|---|

②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비교해봅시다.

학생들에게 비슷한 소재의 소설들을 한 번에 엮어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본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과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1972) , 그리고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1980)은 모두 ‘교실 내 권력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세 작품 모두 학교라는 공간을 무대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나 교실이라는 공간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중심 사건이 학교 내의 폭력이라는 것과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지배와 복종, 폭력과 저항, 무관심과 굴종, 용기와 비겁 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훌륭히 그려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발표 시기 뿐 아니라 각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주제 및 학생들의 태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세 작품 중 제일 먼저 발표된 「아우를 위하여」는 빈 창고나 들판에서 수업해야 했던 6.25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4.19혁명을 전후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우상의 눈물」은 시대적 배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1970년대 말의 고등학교가 배경이다.

*** < 각각의 작품을 비교해봅시다 >** ←아이들과 함께 각각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상의 눈물]	[아우를 위하여]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라는 협소한 공간을 무대로 삼고 있다. -소설 속의 중심 사건이 학교 내의 폭력이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구조를 통해 사회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혁명을 전후한 시기 -독재자가 생기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성 때문이라 경고. -6학년 담임의 도움으로 부당한 독재 권력을 몰아낸다. -권력의 무상함 그림. -권력에 기생하는 소시민적 기질과 순응주의를 비판함. -마지막에 어른이 된 병태를 보면 다소 독재 권력(엄석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1980년대 -단순히 담임의 계약으로 권력의 중심이 기표에서 형우 (또는 담임)에게로 옮겨졌을 뿐임. -아이들에게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각성)이 없는 상태.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무서움을 그려냄. -(화자의 서술 태도를 보면) 기표라는 인물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으므로, 당시 사회와 관련해 독재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만 한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직후 -비정상적인 사회구조가 생기는 것은 민중의 방조와 무관심 때문이라는 경고 -아이들이 용기(각성)를 가지고 부당한 권력을 몰아내 승리한다. (긍정적인 결말)

③ 기표와 담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봅시다.

이 소설은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화자(유대)가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아 기표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제압하려는 담임 및 반장을 관찰하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보면, 교사와 불량 학생간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만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화자(유대)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기표는 폭력을 휘두르는 몹쓸 학생일 뿐이다. 담임은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순조로운 반의 운영을 위해 반장과 힘을 합해 그를 온순한 학생으로 만든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반은 평화를 되찾았고 기표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우한 처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미담(美談)을 통해, 학교도 명성을 얻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왜 기표는

도망을 간 것일까. 왜 모든 것이 두렵다고만 했을까. 그리고 한낱 불량학생에 불과한 기표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담임과 반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 이 소설이 단순히 반의 포악한 권력자를 쫓아냈다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자.

첫째, 진실 또는 호의를 가장한 ‘치밀한 위선(僞善)의 무서움’을 그리고 있다. 악에 대항하는 자의 ‘또 다른 악(惡)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담임과 형우의 위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기표의 초라한 몰락에서,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합법적 권력을 가진 담임과 형우의 교묘하고 위선적 술책이 기표의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기표에 대한 배려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듯한 그들의 술수로 반에는 평화가 돌아오고, 기표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서 기표(또는 그의 의도나 생각)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담임과 형우의 ‘우정’과 ‘봉사’라는 개념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당사자의 의지나 욕망을 배제되면, 이는 곧 그를 억압하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로써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화자가 담임이나 형우를 비판적으로 보고, 별거벗은 폭력으로 대표되는 기표를 비판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지배와 예속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전상국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교실이라는 축소된 공간속에 짜임새 있게 그려 넣었다. 또한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실은 일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학급의 생활은 사회 조직 속의 생활들에 비견될 수 있다. 담임이나 반장은 사회의 공식적 리더십을 대변하는 존재들로, 기표는 바사회적 집단이나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바라보면서 나름 비평을 가하는 유대의 존재는 비판적 지식인 정도, 나약하고 권력에 종속되어, 개인적인 의사를 표하지 못하는 반 구성원들은 소시민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계관과 인격을 가진 자들이 모여 지배와 예속이라는 정치적 현상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참 인간성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은 모두 하나같이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담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의 취약점(기표의 가정 사정,

가난 등)을 물고 늘어졌다. 이는 학생을 위한 올바른 지도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 더군다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기표를 위한 선량한 지도가 아니라는 점, 공격성을 내포한 계략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반장인 형우 또한 마찬가지로 기표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고, 위선적인 호위로 다가가 차근차근 그를 몰락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는 기표 또한 폭력적이고 악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유대는 이 모든 숨겨진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의 구성원들 또한 나약하고 권력에 종속되어, 개인적인 의사를 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런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려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정립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의 소설교육이 지향할 바를 모색해보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현대소설 가운데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의 근대적인 교육현장과 교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국어과교사로서 참고할만한 소설 교수법을 연구하였다.

서론에서 ‘교육소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으며 이 중 교과서에 수록되었거나 가치를 인정받은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네편의 교육소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제시된 ‘왜냐선생’의 소설교수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제재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였고,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소설이란, 교육현장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이 등장인물로 등장하여 교육이 그 소설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 작품, 교육의 이상과 현실이 주요 갈등을 이루거나 교육의 힘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들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소설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교육소설을 통해 각 시대의 우리의 교육현장과 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근대 교육현장과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모습은 대부분의 소설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속에 등장하는 교사의 모습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학생들과 주위의 일에 무관심한 인물로서 이들은 사회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두 번째는 파시스트적인 교사의 모습으로서 해방이후 이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자들과 닮은꼴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계몽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한편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와 농촌간의 괴리현상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입은 동심을 드러낸 소설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그런 소설속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소설 중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네 편의 소설 중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1972)는 두려움에 망설여 하는 아우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로서 힘이 센 사람은 폭력으로 다수의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폭력 앞에 비굴해지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폭력에 굴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편지를 읽는 아우(모든 독자)에게 불의하고 억압적인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바라는 소망을 피력한 교육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1980)은 학교라는 하나의 사회구조에서 숨길 것 없는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권력과 합법적인 지배를 통해 교묘하게 위장한 권력간의 힘겨루기 모습을 통해 작가는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교활한 위선과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에게 가면을 씌운채 불합리한 권위를 이용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악랄한 모습으로 인간을 망가뜨리기까지 한다면 교묘한 술책으로 가려졌을 뿐이지 왜곡된 독재이며 그런 왜곡된 권위라면 정면으로 맞서나가야한다고 작가는 외치고 있다. 세번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은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 조명해 본 작품이다. 절대 권력이 지닐 수밖에 없는 허구성, 그리고 그 허구성의 형성 배경은 주변의 방조와 묵인에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여 형성된 권력이 제도와 질서라는 미명하에 군림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질서에 기초해 있는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변혁에 대한 대중의 욕망과 그 실천이 때로는 간교할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전교조 투쟁이 한창이던 1990년초를 배경으로 전교조 문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야했던 억압적인 교육현실을 보여주며 특히 '왜냐선생'의 수업방식을 통해 소설읽기가 단지 텍스트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창조적인 글쓰기로 연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의 '왜냐선생'의 소설교수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제재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였고 '교실 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을 각자 읽고 이 작품을 잘 읽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토론 주제로 집어내어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소설의 특수성에 연연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서 벗어나 작품에 깔려있는 가치의식을 깨닫게되고 거기에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키워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이라 본다. 또한 작품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고급의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언어능력을 신장시킬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향상을 중시하는 7차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교과서내 수록된 여러소설들의 바람직한 소설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잇따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본 연구를 마무리 지을까한다.

참 고 문 헌

1. 기초자료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신동아, 1972.
전상국, 「우상의 눈물」, 민음사, 1983.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사, 1987.
최시한,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문예중앙』, 1992, 가을호.

2. 논문 및 평론

- 황명훈, 「교실내 권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 비교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이동재,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교육현장과 교사상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 이용균,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승우, 「황석영 중,단편 소설 연구- 소설집 『객지』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박주용, 「황석영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승우, 「황석영 중단편 소설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0.
이용균,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대학원, 1998.
서정숙, 「황석영의 작가 의식 연구」, 국어과교육 제9집, 부산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89.
- 김영선, 「전상국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권채린, 「전상국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최용주, 「전상국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숙민, 「전상국 성장소설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0.
김병연, 「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연구-전상국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1.

안남연, 「이문열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작품에서 드러나는 관념성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통해 본 현실인식의 한계」, 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김태준, 「이문열 중장편 소설 연구, 안양대 교육대학원」, 1999.

정지아, 「이문열론 - 작가의 현실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7.

김미옥, 「이문열소설연구-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박혜주의,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최시한, 성민엽, 진정한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對談>, 『문학과 사회』 (통권 37호: '97. 봄)

3. 대담

최시한, 『함께 여는 소설교육』, 2004, 여름.

4. 단행본

김동훈, 『교실에서 세상읽기』, 대경출판, 1997.

김인환, 「주제와 변형-전상국론」, 『우상의 눈물』 해설, 민음사, 1983.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이문열 중단편집(하)』 해설, 열린책들, 1993.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이문열』, 살림, 1993.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이문열』, 살림, 1993.

이명섭, 세계비평용어사전(서울:을유문화사, 1985).

박윤석, 「부악문원 탐방」, <신동아>, 1998.4.

우찬제, 소설과 사상이 만나는 언어 공간, 『상처와 상징』, 민음사, 1994.

김옥동, 『이문열 -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 민음사, 1997.

권영민,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4.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94.

김중회, 『문학과 사회』, 집문당, 199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문학사상, 1987.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조경숙, 1982.

장윤수, 『한국 근대 교육 소설 연구』, 보고사, 1998.

ABSTRACT

Study on the Subject of Korean Novel Education and the Method of Teaching

Byun, Na - hyu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uild a literary model to understand our society in better perspectives and to suggest a guide for the novel education.

In the first chapter, the "Education Novel" is defined as the novel which deals with the subject, focusing mainly on the educational matter. Its content shows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idealism of education or the power of education which causes the critical changes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second chapter, the following 4 novels, For the Little Brother by Suk-Young Hwang, The Tears of an Idol by Sang-Guk Jeon, Our Distorted Hero by Mun-Yeol Lee, and Learning Huh-Sang-Jeon by Si-Han Choi, were analysed. These educational novels were selected due to their public popularity.

In the third chapter, "The Method of Novel Education" of "Why-teacher" in the novel, Learning Huh-Sang-Jeon by Si-Han Choi, was attempted to be implemented in the educational site. The subject of The Tears of an Idol by Sang-Guk Jeon was used to examine executable "The Method of Teaching." For the Little Brother by Suk-Young Hwang and Our Distorted Hero by Mun-Yeol Lee, have been also compared, and analysed because they are similar in dealing the content of "The problems of the authorities in the classroom." From "The Method of Teaching" the teaching method was devised, focusing on the students activity by giving them the core and concrete subject of discussion. I believe this way of teaching can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re meaning of the novel instead of seeing the novel's exterior features. Also this way of teaching can make the students react diversely, and let them develop their sensitive consciousness for the valuable life. Reading and thinking about the novels can grow their sensibility and logical thoughts highly, and gives them ability to express them directly.

Therefore this is the teaching method that also corresponds educational goal in 7th course of study, which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developing creative communication skill.